

제 131호 새 학기 다짐 1

새 학기가 곧 시작됩니다. 여름 방학 동안 하려고 했던 일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이 쌓이기 시작할 시기입니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 학기, 일년이 또 훌쩍 지나가 버리기 일췌입니다. 뜻 있는 일을 하려면 학기가 시작하기 전의 귀중한 시간을 아무 계획 없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강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더 좋은 학습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려면 아래 몇 가지 다짐 사항을 학기 전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말투와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한다

교육자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떠들지 말라, 놀지 마라, 지각 하지 마라, 컨닝하지 마라" 등 행동을 규제하는 말은 물론 부정적입니다. 그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할 때 "~해야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면 부정적인 말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숙제해야 한다, 출석해야 한다."

이런 "해야 한다"는 말 뒷면에는 "낙제하지 않으려면..."이라는 일종의 '협박'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부정적 메시지에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거부감이 느껴지는 말이 마음 속 깊이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이 왜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 숙제를 하면 학생에게 무엇이 어떻게 이로운가? 이 수업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강의 첫 시간에 설명하면 학생이 출석과 숙제에 대한 책임감과 동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학생이 미리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는 미리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레 속단 하시지 마십시오. 이런 기대와 속단은 현실과 차이가 큼니다.*(잔소리 코너) 또한 알고 있다하더라도 학기초에 다시 한번 더 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세 번 반복하라는 교수법이 있습니다.)

물론 "하지 마라" 또는 "해야한다"라는 말이 다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식의 말투나 메시지가 적합하거나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습관을 가져 보십시오. 긍정적인 말은 가능성을 열어주며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에 적힌 부정적 문장(뜻 있는 일을 하려면 학기가 시작하기 전의 귀중한 시간을 아무 계획 없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문장 대신 가능성과 희망을 주는 문장(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면 뜻 있는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으로 바꾸면 좀 더 듣기 편할뿐더러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잔소리 코너>>

* 대학생들을 "애들"이라고 칭하는 교수님을 흔히 보았습니다. "애"는 당연히 자신의 행동

에 대한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훗날 받을 보상 따위에는 흥미가 없고 그 대신 즉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대학생을 "애"로 보신다면 학생 들로부터 성숙함을 기대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학생들로부터 성숙함을 기대하신다면 학생들을 대등한 인격체로 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 조벽, 2001